

스티로폼(PSP) 식품 용기 차세대 위해성 없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국제 심포지엄이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일본 고베시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협회는 최주섭 전 무가 심포지엄에 직접 참가해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련된 국제적인 연구동향을 살피고 돌아왔다. 심포지엄 발표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내분비계 장애물질 국제 심포지엄 참관

● 매머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일본 고베시 국제회의장에서 환경청이 주최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일명 환경 호르몬)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주제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검색시 험법,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생체내 작용 메카니즘, 야생 생물에 미치는 영향, 각국 정부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대책과 연구 상황 등 9개 주제 총 65개 세부 주제가 발표되었다. 또한 국제회의장 한쪽 홀에서는 일본 내분비계교관 화학물질학회의 연구 논문 발표회가 포스터전으로 개최되어 7개 분야에서 총 241개 세부 주제가 발표되었다.

● 학문적인 열기에 비해 사회적 관심은 평온

일본의 언론이나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엔 개최된 국제 내분비계 장애물질 심포지엄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인상이었고, 일부 연구 결과가 일간신문(주로 식간)에 중요도 없이 작은 기사로 보도되는 정도였다. 아마 국민들이 정부의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의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 보는 자세로 돌아간 것으로 분석된다.

● 스티렌 다이머와 트라이머의 차세대 무해성 입증

스티로폼 식품 용기에서 검출된 스티렌 다이머와 트라이머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계가 주도, 여성 호르몬 독성 시험을 실시하여 혐의 물질의 무해성 결과를 발표하였다. 스티렌 다이머와 트라이머의 쥐 임신기 및 수유기에 경구 투여 시 차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일본 (재)식품약품안전센터 테쓰지 나가오 박사가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임신, 수유 중에 스티렌 올리고머를 1일 섭취량 추정치의 1,000배 경구 투여했을 때 모친으로부터 태어난 자식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한 결과 F1 세대의 최기형성, 발달, 생식, 행동, 기능에 관한 시험 항목에서 모두 영향이 없었으며, F2 세대의 최기형성, 성장, 생존율에도 영향이 없었다.

